

HF월간 산업 이슈 (2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보건업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성장 중인 원격진료 시장

-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으로 원격진료 이용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자 제도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은 물론 빅테크와 대기업 까지 원격진료 관련 사업 확장에 나섬
- 팬데믹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원격진료의 효용성과 편리함을 경험한 만큼 원격진료는 미래 의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전망이며, 향후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전망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1월 국내 자동차 판매량 위축

- 2021년 말에 다소 개선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2년 들어 다시 심해지면서 1월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판매량이 위축되었음
- 차량용 반도체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업체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동을 저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어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

해운 하락세인 벌크선 운임, 동계 올림픽 이후 완만한 상승세 기대

- 1월 벌크선 운임은 브라질의 계절적 물량 감소와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광산 생산 차질과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조치, 올림픽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지 등으로 하락세 기록
- 다만, 최근 운임 하락은 일시적 이벤트에 의한 것이며,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벌크 화물 증가가 기대되고 22년 수급 전망이 양호하여 하락한 운임은 1분기 내 완만한 회복 예상

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압력 중소형 건설사에 집중될 우려

- 광주지역에 연달아 대규모 건설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건설업체의 기민한 움직임도 본격화
- 주택시장 활황의 장기화로 인해 대다수의 건설사가 안전강화를 위한 비용부담에 큰 문제는 없으나 중소형 건설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해 여신 취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기타 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		
F. 건설	건설						●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			
	SW/외			●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보건업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성장 중인 원격진료 시장

자동차 :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국내 1월 자동차 판매 위축

해운 : 하락세인 벌크선 운임, 동계 올림픽 이후 완만한 상승세 기대

건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압력 증소형 건설사에 집중될 우려

Q. 보건업 :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고성장 중인 원격진료 시장

연구위원 안혜영 mith5@hanafn.com

※ **Summary** : 코로나19 발생으로 한시적 허용 중인 원격진료는 팬데믹 장기화로 이용자수가 가파른 성장세 기록. 국내 원격진료 시장의 성장성이 입증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들은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으며, 빅테크 및 대기업도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 중. 국내 원격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원격진료의 효용성과 편리함을 경험한 만큼 원격진료는 미래 의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에는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

■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차에 들어서면서 국내에서도 비대면 원격진료 수요가 급증

- 국내 원격진료¹⁾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년 2월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원격진료 수요는 가파른 증가세 기록 중
 - 정부는 '20년 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원격진료와 약 배달을 한시적으로 허용
 - ※ 원격진료 절차 : 이용자가 관련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 해당 플랫폼과 제휴된 병원 에서 진료 과목 및 의사를 선택 후 원격진료 진행 → 진료 후 의사의 처방전은 해당 약 을 보유한 약국으로 전송 → 이용자는 원하는 장소에서 약을 수령
- 보건복지부 발표(2월 3일)에 따르면 국내 원격진료를 경험한 환자수는 '20년 2월 2.5만 명에 불과했으나 '21년 1월 159.3만 명, '22년 1월 352.3만 명으로 집계
- 또한 보건당국이 2월 10일부터 고위험군 중심 치료 체계를 가동하면서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을 통한 재택치료를 실시하고 있어 향후 원격진료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대상자는 원칙 적으로 입원진료 대상인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며 그 외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 원격진료 시장의 성장성이 입증됨에 따라 기존 플랫폼들은 디지털 의료 시스템 고도화 및 차별화 된 서비스 다각화에 집중하는 한편 빅테크를 비롯한 대기업도 진출 준비 중

- 국내 원격진료 수요가 급증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도 일반화되면서 '한시적 허용'이라는 제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원격진료 플랫폼들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
 - 현재 국내에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닥터나우, 굿닥, 솔닥,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등 등 약 20곳에 달하며 이들 플랫폼의 재진 전환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1) 원격진료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영상 대화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약도 원하는 곳으로 배달 받을 수 있음

- 기진출 원격진료 플랫폼들은 재택치료자의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시스템 안정화 및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고성장 중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메타버스 채널 확대, 전문 인력을 통한 약배달 서비스 등 차별화 된 서비스 다각화를 추진 중
 - 닥터나우, 굿닥, 나만의 닥터 등 선도 스타트업들은 사업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유치
- 한편 원격진료 시장의 성장성이 입증되자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와 국내 대기업 또한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준비 및 다양한 연관 분야에도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의 생태계 구축도 기대
 -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원격진료 및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해 사내 독립기업(CIC)을 설립하였고, 네이버는 계열사인 라인의 '라인 헬스케어'를 통해 일본에서 원격진료 사업을 진행
 - 국내 대기업 삼성과 LG 역시 자회사를 통해 원격의료 기업들에 투자하거나, 병원용 원격진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역량 확보에 나섬

■ 원격진료는 팬데믹 이후에도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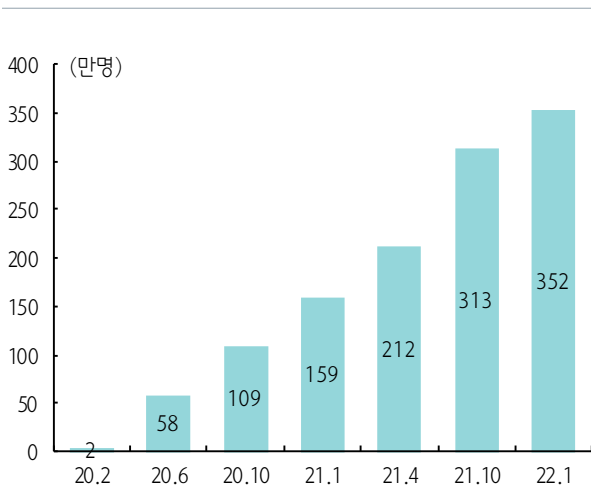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계기로 IT 플랫폼 기반 원격진료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은 의·약계의 반발로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지 못함
 - 의·약계는 쏠림현상, 의료비용 상승, 오진 시 책임 여부 등의 이유로 원격진료를 반대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원격진료의 효용성과 편리함을 경험했고 만족도도 매우 높은 만큼 원격진료는 미래 의료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전망
-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국내 원격진료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스타트업과 후발 진출 빅테크 및 대기업들은 원격진료를 시작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해나갈 것으로 전망 

그림01 | 국내 원격진료 이용자 수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그림02 | 국내 기업들의 원격진료 사업 참여 현황

구분	참여현황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	닥터나우 - 모바일게임기업 '컴투스'와 업무협약 통해 메타버스로 원격진료 채널 확대 추진
	솔닥 - 자체개발 CRM 솔루션 활용,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진료편의성 높이는 데 주력
	올라케어 - 전문 인력을 진료 후 약배달 서비스에 투입, 디지털 취약계층 진료편의성 향상 위해 가족 대리 신청 기능 추가
빅테크	카카오 - 헬스케어 사내 독립기업(CIC) 설립, 의료데이터 플랫폼 등 헬스케어 기업 투자
	네이버 - 라인헬스케어를 통해 일본에서 원격진료 사업 진행하는 한편 관련 연구소 설립
대기업	삼성 -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를 통해 여성전용 원격의료 기업 투자
	LG - 투자 자회사 통해 美원격진료업체 투자, 국내 이지케어텍과 원격진료 솔루션 출시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30. 자동차 : 반도체 공급난 장기화로 국내 1월 자동차 판매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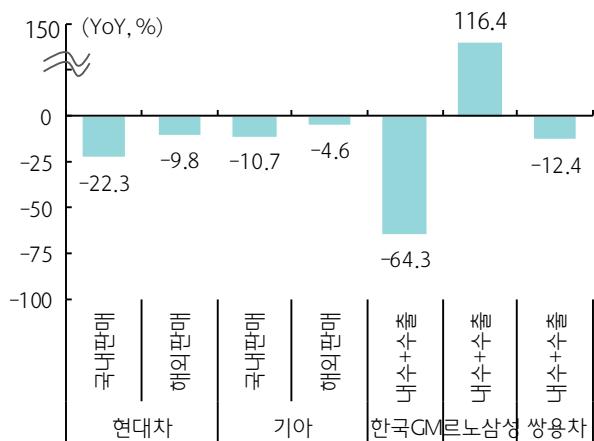
연구위원 오유진 yujin.oh@hanafn.com

※ **Summary** : 2021년 말에 다소 개선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2022년 들어 다시 심해지면서 1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동차 판매량이 크게 감소. 반도체 부족으로 출고지연이 길어지면서 국내 자동차 판매 순위도 요동치는 중.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 가전용 범용 반도체 전용, 파운드리 업체 등과의 기술협력, 내재화,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 차량용 반도체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년 상반기중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반도체 부족에 따른 가동률 저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추기업 실적 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다시 심해지며 2022년 1월 국내 완성차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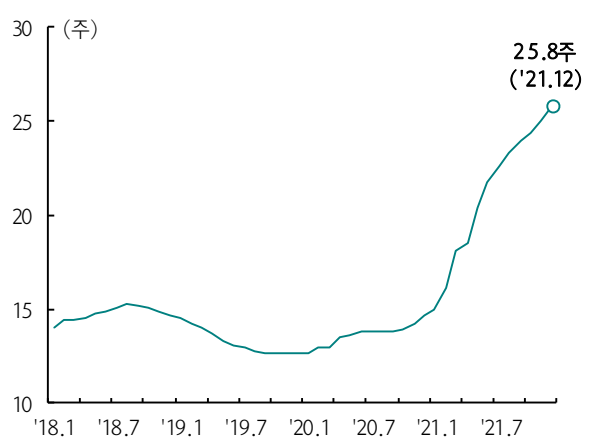
-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 5개 완성차 업체의 1월 국내의 시장 판매량은 52만 8,848대로 전년동기대비 -11.5%, 전월대비 -8.4%로 위축
 - 현대차: 국내+해외 28만 2,204대(-12.1%), 기아: 국내+해외 21만 2,819대(-5.7%)
한국GM: 내수+수출 1만 2,911대(-64.3%), 쌍용차 7,600대(-12.4%)
르노삼성: 내수+수출 1만 3,314대(116.4%)
- 2021년 말에 다소 개선되었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022년 들어 다시 심해지면서 생산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업체별 출고지연 기간도 길어지고 있음
 - 동일 모델이라도 가솔린·디젤보다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하이브리드의 출고지연이 큰 편
-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출고 기간이 긴 기아 카니발, 현대차 투싼 등 인기모델의 1월 판매 순위가 하락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대기가 짧은 제네시스 G80은 순위가 상승

그림1 | 업체별 1월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 증감률



자료 : 각 사 발표, 언론보도

그림2 | 글로벌 반도체 리드타임 변화



자료 : Susquehanna Financial Group, 블룸버그 재인용

■ **글로벌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반도체 부족 대응을 위해 가전용 범용 반도체 전용, 파운드리 업체 등과 기술 협력, 내재화,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

- 현대차는 일반 가전제품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를 차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 도요타와 닛산도 가전용 범용반도체를 차량용으로 전용하기 시작
 - 차량용 반도체는 가전용 반도체보다 온도, 진동 및 충격 등 사용 환경이 혹독하여 더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지만, 차량 구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대체가 가능
-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은 파운드리사 및 설계업체 등과 공동개발 및 구매·생산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은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 중
 - 현대차는 전기차용 전력반도체와 자율주행차용 통합칩(SoC)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진행

■ **차량용 반도체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동률 저하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모니터링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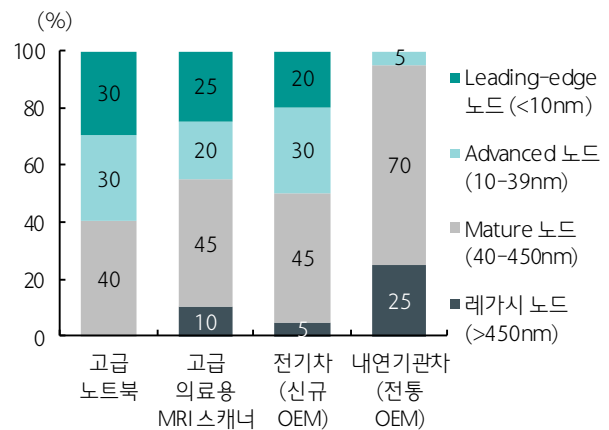
- 포드, GM, 현대차 등은 3분기부터 부족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보는 반면, NXP,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업체와 폭스바겐, 테슬라 등은 2023년은 되어야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
 - 2021년 12월 기준 글로벌 반도체 주문 리드타임은 25.8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
-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수익성이 높고 기술적 격차를 가져갈 수 있는 10nm 미만의 leading edge 노드 생산에 주로 투자하는 반면,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한 반도체는 이보다 덜 정교한 Mature 노드 및 레가시 노드 등에 집중되어 있어 공급 불균형이 지속
- 반도체 부족으로 가동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고무·철광석·니켈·리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업계의 실적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원자재 가격 변동률(% , 연말대비) : 천연고무 21.1, 철광석 10.8, 니켈 15.5, 리튬 332.0 

표1 | 주요 완성차 업체의 반도체 협력 동향

기업	협업 형태	협력 기업	협력 내용
포드	기술 협력	글로벌파운드리	공동개발·직접구매 등 전략적 제휴
GM	기술 협력	NXP·퀄컴·TSMC	공동개발·생산 협력
테슬라	내재화	삼성전자	자율주행 및 AP 생산 협력
스텔란티스	기술 협력	폭스콘	특수 MCU 설계·생산 협력
도요타	내재화	르네사스·TSMC	정부 주도 지분투자로 협력
현대차그룹	내재화	-	장기 계획 수립 중

자료 : 한국자동차연구원, 언론보도

그림2 | 주요 용도별 반도체 사용 기술 비중



자료 : Roland Berger

I. 해운 : 하락세인 벌크선 운임, 올림픽 이후 완만한 상승세 기대

연구원 김종현 jh.kim_@hanafn.com

※ **Summary** :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21년에 이은 운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벌크선 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브라질 홍수, 호주 오미크론 확산에 의한 광산 생산 차질과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제한 등이 하락세를 견인. 또한 중국의 춘절 연휴와 베이징 올림픽 이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장 가동 중지 등이 운임 하락세에 영향.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의 석탄 수출 재개에 따라 일부 노선 회복세 전환. 또한, 올림픽 종료 이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가 본격화됨에 따른 철광석 수요 증가 및 브라질 광산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 등의 호재로 벌크선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

■ 계절적 특성과 오미크론으로 교역량 감소하며 '22년 1월 벌크선 운임지수는 전월比 38% 하락

- 해상교역량 변동이 운임 등락과 직결되는 드라이 벌크선 시장은 최근 주요 화물(철광석, 석탄)의 물동량 감소세에 따라 BDI(발틱 드라이 벌크 운임지수) 하락
 - BDI(P) : 4,820('21.10) → 2,780('21.11) → 2,832('21.12) → 1,761('22.1)
- 브라질 남부지역 홍수와 호주 북서지역 오미크론 확산으로 주요 광산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 및 남북항로(호주-아시안) 운임 하락
 - 브라질 철광석 수출량(백만ton) : 33.4('21.9) → 30.8('21.10) → 28.9('21.11) → 31.4('21.12)
 - 댐피어-칭다오 운임(\$/ton) : 17.4('21.10) → 12.1('21.11) → 11.0('21.12) → 7.8('22.1)

■ 석탄 수출 금지로 소폭 하락했던 인니 운임은 최근 인니 정부의 수출 재개로 회복 전환

- 자국 내 석탄 채고 수준이 개선되면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1월 28일부터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였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운임은 회복세로 전환
 - 석탄 수출 금지 철회로 석탄 수출 물동량이 회복되면서 Panamax의 운임지수는 '22년 1월 1,260p에서 '22년 2월 1,370p로 상승
- 인니 정부는 국내 석탄 공급 미달에 따른 에너지 부족 사태로 석탄 수출 금지 조치를 1월 1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Panamax(80,000dwt) 용선료는 소폭 하락
 -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량의 25%를 톤당 70달러 이하로 국내에 공급하는 의무규정이 있으나, 석탄 가격이 톤당 200달러에 육박하자 석탄 생산 업체가 수출에 집중
 - 석탄은 전체 Dry Bulk 화물 중 약 20%를 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최대 석탄 수출국이자 중국 석탄 수입량의 3/4 가량을 담당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벌크 화물 10% 감소 추정

■ 올림픽 기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공장 가동 중지로 철광석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부동산 규제 완화로 물동량 증가 및 운임의 완만한 회복 기대

- 춘절 연휴에 의한 생산 중단과 올림픽에 대비하여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동중국 주변의 제철 공장 가동 제한으로, 중국의 철광석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벌크선 운임 하락
 - 철광석은 전체 Dry Bulk 화물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 교역량 중 중국 수입량의 비중이 70% 이상이므로 중국의 철광석 수입 감소는 벌크선 운임 지수 하락으로 이어짐
-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철강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철소의 수익성 개선과 철광석 수요 증가를 촉발하여 수입 물량 확대 예상
- 올림픽 이후 공장 재가동과 봄철 건설 조업 재개 및 유통업체들의 철강재 재고 비축 활동 증가에 따라 철광석 수입량이 재차 회복되며 벌크선 운임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

■ '22년 건화물선 시황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수요 둔화로 전년대비 하향 안정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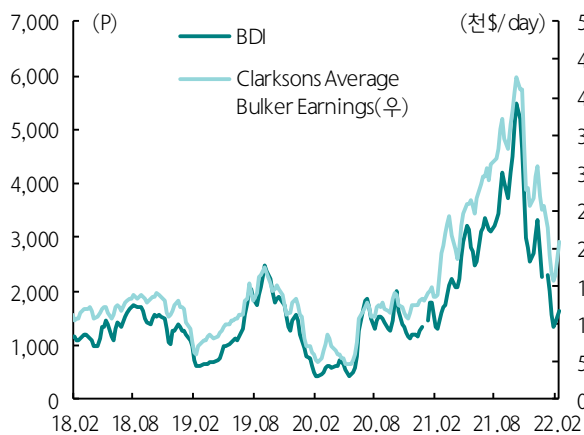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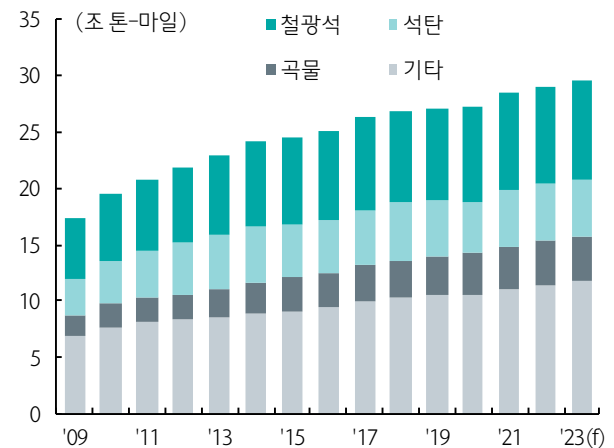
- 최근의 운임 하락은 일시적이며 1분기 내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항만 정체에 따라 회복 정도와 시기는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
- 중국의 조강생산 규제 완화 시 철광석 수입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주요 철광석 광산들의 저원가 증산전략은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15년 이후 벌크선은 신조선 대량 발주의 부재로 컨테이너선과 달리 신규 공급 유입에 대한 압력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22년 공급 증가율은 약 2.0% 전망
 - '21년은 물동량 증가율(3.8%)이 공급 증가율(3.6%)을 상회하여 운임 강세를 보였으나 '22년은 물동량 증가율(1.7%)이 공급 증가율(2.0%)을 하회하여 운임 하향 안정화 예상 

그림1 | BDI 및 Clarksons Average Bulker Earnings



자료 : Clarksons

그림2 | 주요 벌크화물 해상 교역량 추이



자료 : Clarksons, 하나금융경영연구소

F. 건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비용부담 압력 중소형 건설사에 집중될 우려

연구위원 황규완 gwhwang@hanafn.com

※ **Summary** : 최근 광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연달아 두건의 대규모 건설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청업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중. 한편,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건설 현장 고유의 특성을 감안한 처벌 수위 조절을 모색하던 건설사들의 입장은 위축이 불가피해 보수적인 법 적용이 예상. 이에 따라 각 사들은 BIM 도입, 최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건설능력 평가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감당할 재정적 여유가 없어 해당 기업에 대한 신중한 여신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위험이 부각

- 1월 16일 발생한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전년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은 대규모 건설 재해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
- 해당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1월 27일) 이전에 발생해 처벌 대상은 아니나 두 사고 모두 'HDC현대산업개발'이 관여되어 있으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건설재해에 대한 처벌강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 최근까지 건설업계는 건설 사업장의 특수성(분산된 사업장, 하도급 중심의 시공에 따른 관리감독의 한계)을 고려해 법 적용 완화 등을 주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등의 안전확보 및 적절한 보상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기존의 법규와 별도로 경영자의 처벌 강화를 명문화해 경영자가 산업안전 확보에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표 |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1.11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 (2단지 201동 38~25층 붕괴)
1.17	정몽규 회장 사임(HDC 지주회장직은 유지) 현장관리자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
1.20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징계* 착수(최장 8월)
2.8	실종자 6명 수색 완료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조사 실시

그림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중대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자 1인 이상 •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인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년 내 1인 이상 사망 		
경영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 		
처벌 내용	재해	경영책임자	법인 등
	사망	1년이상 징역 or 10억원 이상 벌금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	7년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 벌금

* :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건(21.6월)
자료 : 언론기사 종합

자료 : 고용노동부(2021),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 **건설업은 종사자가 많고 사업장이 분산되어 본사차원의 관리강화를 통한 위험통제에 한계 존재**

- 건설업은 모든 업종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대상으로 인식되나 임금근로자 1만명당 사망인원(사망만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산업재해 상 건설업의 위치(2019년) : 종사자 수 249만명(1위), 사업장 수 37.8만개(1위), 사망자 수 517명(1위), 사망만인율 2.1명(5위)
- 다만, 본사차원의 안전관리 강화가 강조되더라도 개별 공사 현장의 특수성, 건설공사 특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위험통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
 - 건설활동은 야외에서 진행되므로 날씨 등 외부요인의 영향이 불가피하며, 부족한 공사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강행공사) 등이 불가피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

■ **장기 활황으로 재무충격 제한적이나 중소형 건설사는 대응여력이 부족해 면밀한 모니터링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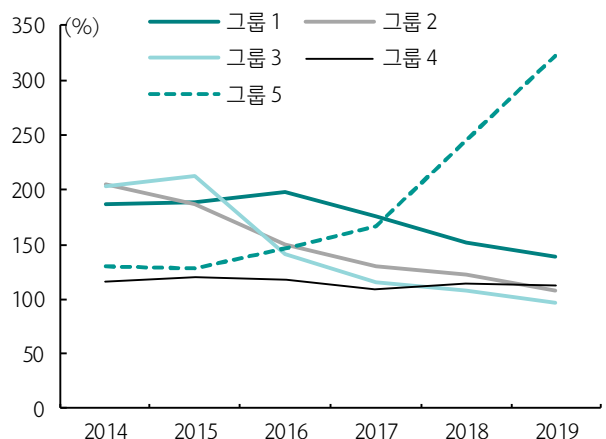
- 건설사들은 BMI 적용, 안전관리최고책임자 선임 등 대비책 마련 중이나 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며 기존 산업장의 공기지연에 따른 준공 리스크 현실화도 우려
 - 책임준공 약정이 전제된 현재의 PF 대출 구조에서 건설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은 공사기간을 기존 대비 2~3개월 더 확보하는 것이나 이자비용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
- 장기화된 부동산시장 활황 및 과거보다 적극적인 건설사들의 재무위험 관리로 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재무여력이 개선되어 대응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시공능력 평가액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건설사는 보유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이 매우 취약해 여신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 **유**

표 | 산업재해 발생 현황(2019년 기준)

산업구분	사망자 수	사망만인율
건설업	517	2.08
광업	406	365.50
기타의 사업	406	0.40
기계기구, 비금속 및 금속제품제조업	246	1.6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53	1.68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54	1.19
전기기계·전자제품·기타정밀기구 제조	39	0.43
유리·도자기·시멘트제조업	35	4.32
선박건조 및 수리업	29	2.01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22	1.23

주 : 사망만인율 = (사망자수 / 임금근로자수) × 10,000
 자료 : 통계청

그림 | 건설사 부채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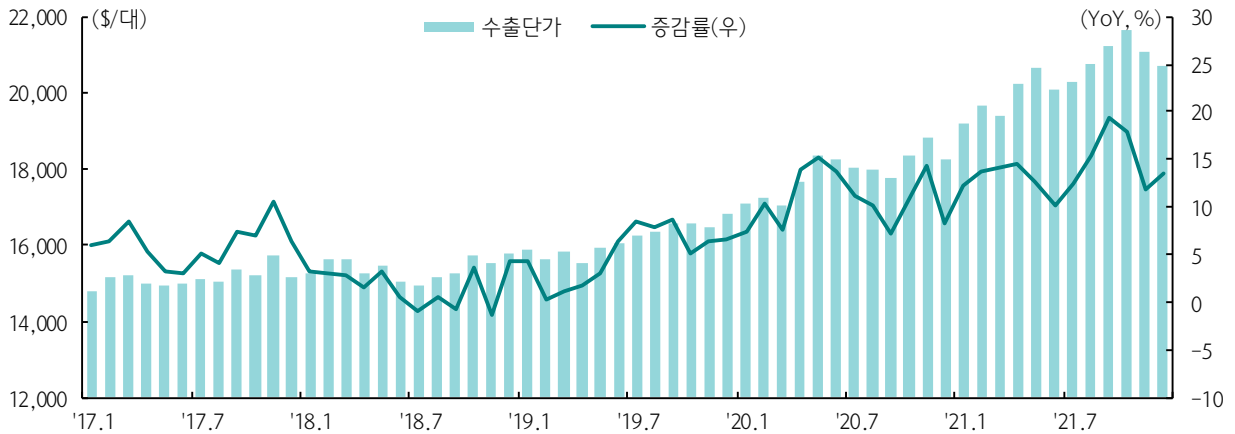
주 : 그룹1은 대기업 계열 건설사, 그룹2는 건축중심 건설대기업, 그룹3은 건축중심 중견기업, 그룹4는 평가액 800억 미만, 그룹 5는 평가액 200억원 미만인 건설사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산업별 주요 지표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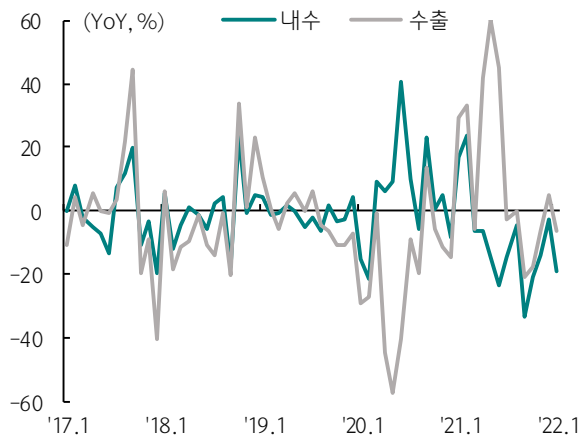
그림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및 증감률 추이



자료: KAMA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전월비(%)	전년비(%)
수출단가(\$/대)	20,081	20,296	20,761	21,224	21,631	21,051	20,692	▼1.7	▲13.5

그림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률 추이



주 : 1월 실적은 잠정치
자료: KAMA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내수판매량(대)	123,909	130,250	94,387	▼27.5	▼19.0
수출량(대)	175,621	183,485	179,709	▼2.1	▼6.4

그림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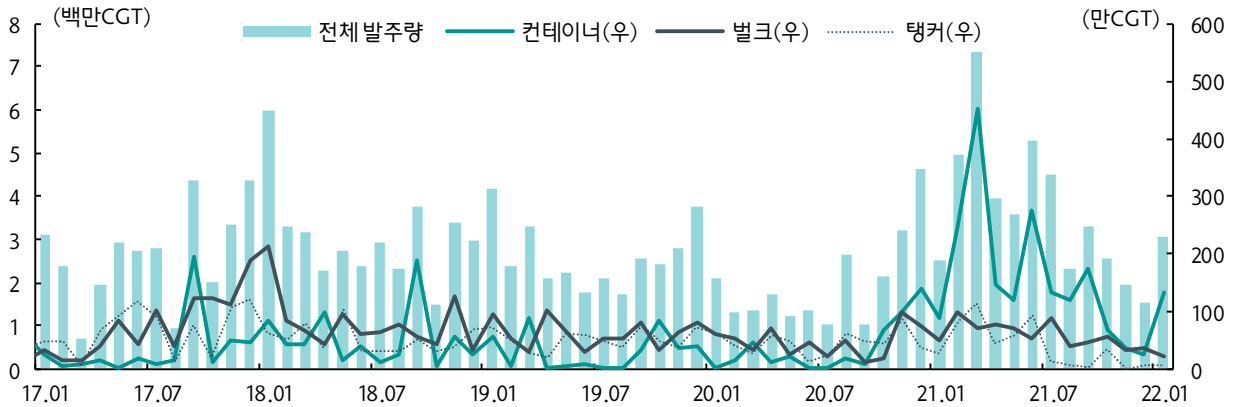
자료: KAMA

	21.10	21.11	21.12	전월비(%)	전년비(%)
현대차 해외생산량	163,205	181,557	180,280	▼0.7	▼22.5
기아 해외생산량	96,433	97,100	83,235	▼14.3	▼8.0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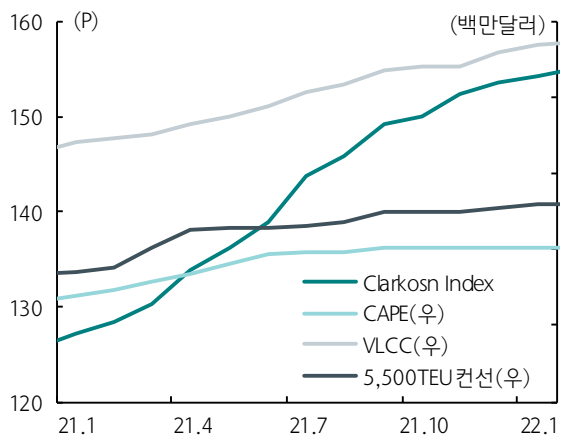
그림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자료: Clarkson

선종별 발주량 (만 CGT)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전체 발주량	450	232	329	258	194	156	307	▲96.8	▲20.9
컨테이너	134	1200	173	68	36	24	133	▲454.2	▲48.1
벌크	87	38	45	56	32	37	21	▼43.2	▼56.7
탱커	13	5	2	36	0	5	6	▲24.0	▼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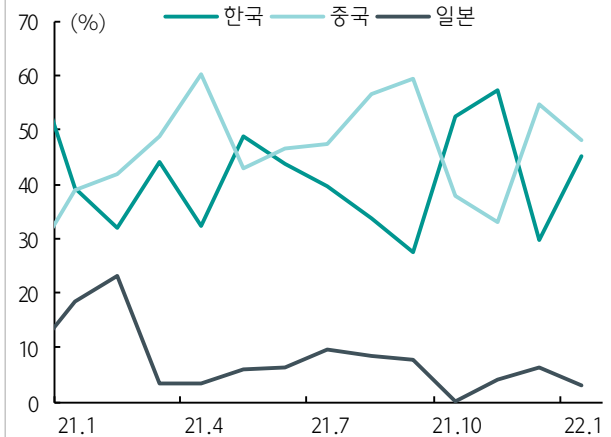
그림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

선가지수 (P) 및 선가 (mil \$)	21.11	21.12	22.01	전월비 (%)	전년비 (%)
Clarkson Index	152.4	153.6	154.3	▲0.5	▲21.4
CAPE	60.3	60.5	60.5	▲0.0	▲26.0
VLCC	108	112	114	▲1.8	▲29.5
5,500TEU 컨선	71	71	72	▲1.4	▲33.3

그림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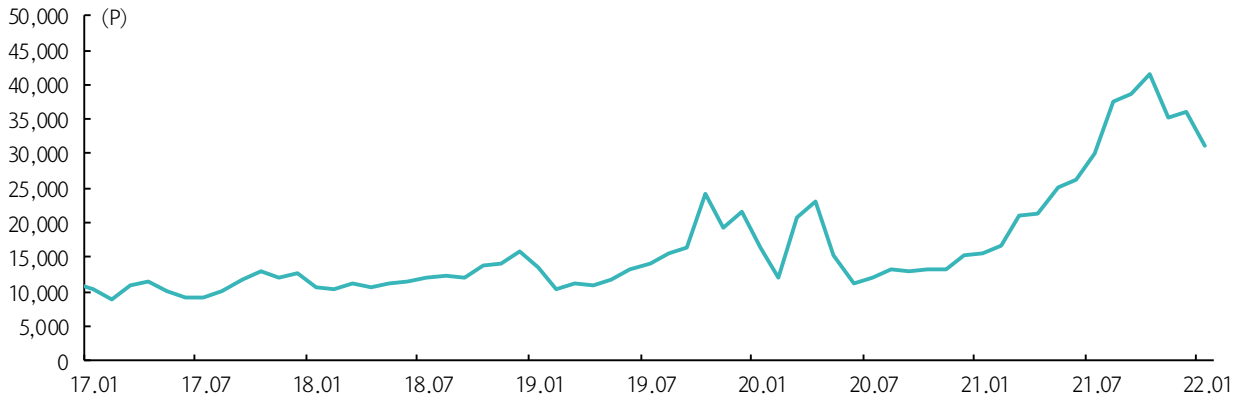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주 점유율 (%)	21.11	21.12	22.01	전월비 (P)	전년비 (P)
한국	57.3	30.9	45.1	▲14.2	▲6.1
중국	33	51.5	47.9	▼3.6	▲8.5
일본	4.1	7.3	3	▼4.3	▼15.4
합산	94.3	89.7	96.1	▲6.4	▼0.8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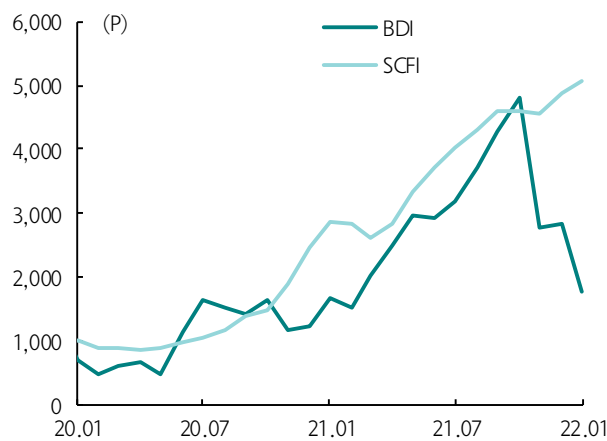
그림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sea Index)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Day)	21.07	21.08	21.09	21.1	21.11	21.12	22.01	전월비(%)	전년비(%)
Clarksea Index	29,967	37,395	38,671	41,582	35,132	36,001	31,256	▼13.2	▲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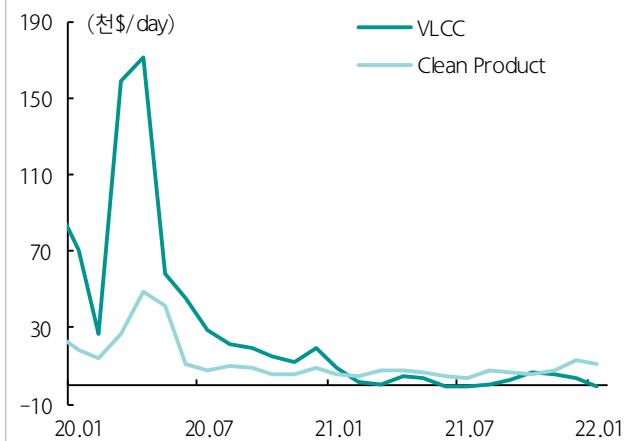
그림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자료: Clarkson

운임 지수 (P)	21.11	21.12	22.01	전월비 (%)	전년비 (%)
BDI	2,780	2,832	1,761	▼37.8	▲6.2
SCFI	4,561	4,887	5,067	▲3.7	▲76.5

그림 | 탱커선 운임(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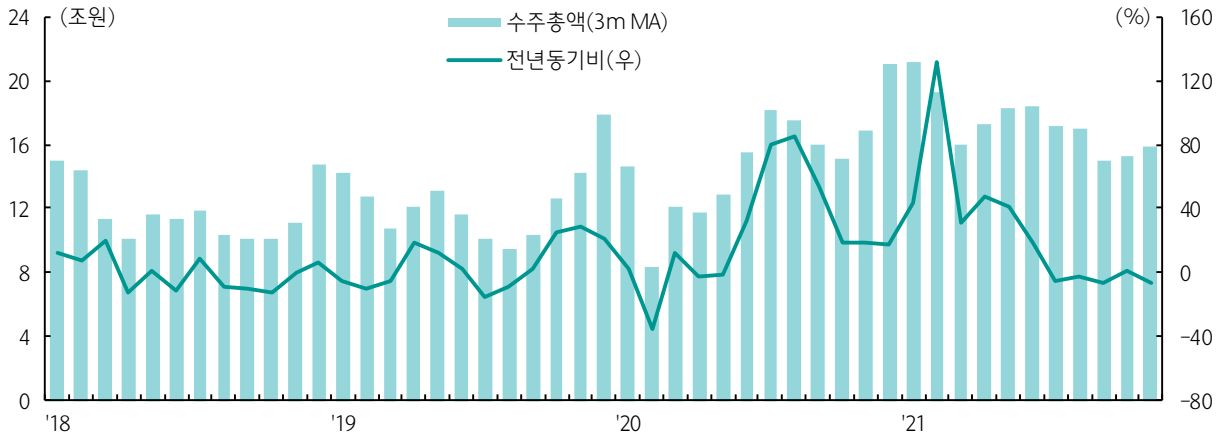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운임 (\$/Day)	21.11	21.12	22.01	전월비 (%)	전년비 (%)
VLCC	5,646	3,804	-220	▼105.8	▼102.6
Clean Products	7,753	12,907	11,006	▼14.7	▲82.3

건설업(C26) 주요 지표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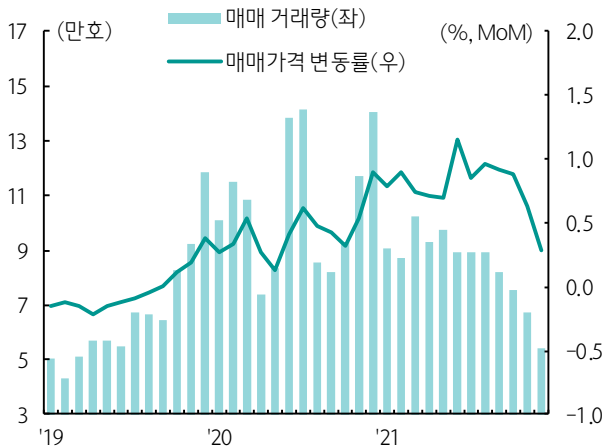
그림24 | 국내 건설수주 총액



자료: 통계청

공종별 수주액 (3m MA/조원)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전월비(%)	전년비(%)
전 공종	18.31	18.36	17.15	17.02	15.05	15.29	15.88	▲3.9	▼6.0
건축(주택)	6.60	7.26	6.84	7.14	6.35	6.73	6.70	▼0.5	▼15.0
건축(비주택)	7.17	6.89	5.99	6.24	5.60	5.81	5.32	▼8.4	▲3.4
토목	4.54	4.21	4.32	3.63	3.10	2.75	3.86	▲40.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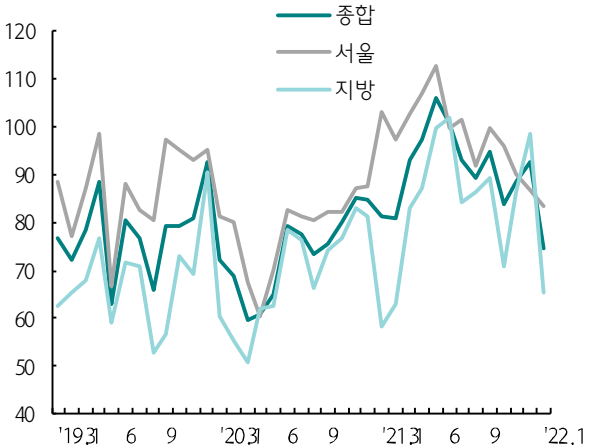
그림25 | 주택시장 주요 지표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주택시장 지표	21.10	21.11	21.12	전월비(%)	전년비(%)
주택매매거래량(호)	75,290	67,159	53,774	▼19.9	▼61.7
주택가격 지수	103.7	104.3	104.6	▲0.3	▲9.9

그림26 | 건설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지역	21.11	21.12	22.1	전월비(%)	전년비(%)
종합	88.4	92.5	74.6	▼19.4	▼8.1
서울	90.1	86.7	83.5	▼3.7	▼19.0
지방	86.4	98.6	65.3	▼33.8	▲12.2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02-2002-2683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